정치와 종교 : 조선왕조 초기 성리학적 정사논쟁(正邪論爭)의 정치적 전개과정과 제도화과정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일고찰

정태식*

‖ 차 례 ‖

1. 들어가는 말
2. 정학(正學)으로서의 성리학과 사대부의 등장
3. 성리학적 정사논쟁의 전개과정
4. 통치구조의 조직화를 통한 정사논쟁의 제도화
5. 나가는 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조선왕조 건국을 전후로 하여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사논쟁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역사사회학적으로 고찰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리학은 조선왕조의 정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되면서 개국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하였고 군왕은 물론 권신들의 정치적 언행을 성리학의 빛으로 스크린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상호 견제장치로도 활용되었다. 그러나 선초에 역성혁명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교를 상대로 정사논쟁을 펼치는 등 성리학 자체의 이념과 신왕조의 정치현실간의 괴리가 없지 않았기 때문에 성리학의 국교화는 왕조의 안정과 더불어 정치 불안을 배태하기도 하였다. 특히 건국초기에는 정사논쟁을 바탕으로 한 왕권과 신권의 갈등, 왕권 찬탈을 위한 골육상쟁, 공신책봉과 같은 비정상적인 통치수단의 활용과 이에 따른 경제적 국력 낭비 등이 있었고 조선 중기와 후기에는 사림의 중앙 진출에 따른 훈구파와 사림파의 갈등, 이에 따른 사화, 그리고 학연과 지연을 배경으로 하는 당쟁 등이 벌어졌다. 물론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사논쟁이 군왕과 대소신료(大小臣

*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책임연구원

僚)들 사이의, 그리고 각 권력기관들 사이의 권력의 조화와 견제를 위한 장치로 제도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데올로기가 지니는 정치적 해석에 있어서의 난맥상과 이해관계에 얽힌 정치적 활용과 남용으로 인해 조선왕조의 정치 현실에 있어서 성리학을 둘러싼 정사논쟁은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주제어 성리학, 정사논쟁, 정치와 종교의 일원화, 사대부, 사림, 공신제도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조선왕조 초기에 있었던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정사(正邪)논쟁의 정치적 전개과정과 이를 통한 체제의 정통성의 확보 과정을 역사사회학적으로 추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신(新)왕조에 의한 통치 원리로의 유교의 수용, 즉 정치와 종교의 일치는 특수한 권력관계의 정치적 갈등 상황을 야기했고, 정사논쟁은 이러한 위기로부터 왕조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 기제로 작동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사논쟁이 통치기구의 제도화를 통해 정치구조에 안착하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신왕조에 의한 성리학의 국가유교화는 왕조 성립의 사회 윤리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왕조 건립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왕조 초기부터 정치 불안을 배태하기도 하였다. 그것은 전통적 유교의 정치윤리가 성리학이라는 정치이데올로기로 전환되어 조선의 지배체제로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를 '이해와 관계된 사상(interest related idea)'이라 한다면 모든 이데올로기는 그것이 품는 이상(理想)과 그것의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를 떨쳐버릴 수가 없게 된다. 고려 말에 이미 성리학은 당시의 정치종교라 할 수 있는 불교를 대체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새로운 도덕

적, 사회 윤리적 가치를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떠오른 사대부 계층에 내재화함으로써 이들을 자극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러한 성리학을 체화한 신흥사대부들은 유교의 궁극인 평천하가 기본적으로 수신, 제가, 치국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어지기에 개인과 가정의 도덕적 완성을 정치적 차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표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왕도정치를 표방하는 조선왕조의 창업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성리학의 정치적 이상은 물론이고 이들 건국세력들이 품었던 기대는 현실 정치에서 완벽하게 구현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군왕과 군신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념적 또는 물질적(여기서는 권력) 이해관계(ideal or material interest)로 인한 갈등 때문이었다. 또한 건국을 둘러싼 과정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 행태가 성리학 자체가 지니는 교의적(教義的)이고 윤리적인 의미체계와의 이데올로기 내부적 모순을 야기했으며, 군왕 또한 조선사회의 또 다른 합법적 지배세력인 관료나 지방의 토착 향리(鄕吏), 그리고 양반 사대부들에 의해 권력이 제한되어져 왕권의 안정을 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1)]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왕권은 다음의 네 가지 요인에 의해 딜레마에 빠지고는 하였다. 첫째, 왕권계승을 둘러싼 왕자들 간의, 혹은 왕족 간의(예컨대 조카와 삼촌) 골육상쟁은 군왕의 절대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한편 왕권의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였다. 둘째, 이로 인한 군왕의 권위 위축은 왕권으로 하여금 관료와 신흥귀족들과의 권력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이러한 와중에서 벌어지는 군왕의 변칙적인 통치 수단(예컨대 공신제도(功臣制度))에의 의존은 성리학적 통치이념이라 할 수 있는 과거시험을 통한 인재등용의 원칙과의 모순을 불러왔다. 셋째, 군왕은 경제력과 인력 등에 대한 통제권을 장악해야 했지만 건국이나 쿠데타를 통해 책봉된 다수

1) James B. Palais, "Political Leadership in the Yi Dynasty,"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Edited by Chae-Jin Lee, etc.,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6), 4쪽.

의 공신들이 공신전 등을 통해 방대한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왕권의 강력한 견제세력으로 부상하자 또 다른 변칙적인 통치수단인 지방 사대부, 또는 사림과의 정치적 결탁을 도모함으로써 중앙집권제적 통치이념과의 모순을 스스로 자초하기도 하였다. 넷째, 군왕은 정치 이념으로서의 성리학이 부여하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으며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사회정치적 위상을 공고히 하고 왕권의 폭정을 억제하기 위해 성리학의 교의체계를 철저히, 혹은 교묘하게 활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2)]

결과적으로 사회 지배집단인 양반과 중앙의 새로운 정치귀족들은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고 군왕의 덕치를 위해 군왕을 보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군왕과 대립하기도 하였고 군왕의 권력집중을 억제하려하기도 했다. 따라서 조선왕조 건국을 전후로 하여 군왕은 권력과 정당성의 확보와 실천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드러내고는 하였는데, 이는 곧바로 유교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활용, 즉 정사논쟁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사논쟁은 군왕, 정치관료, 사대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에서 흔하게 활용되는 정치적 기제로, 즉 정통성의 독점을 위한 장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가, 권력구조의 제도화를 위한 통치기구의 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자 통치기관들 사이의 권한과 역할의 상호견제를 위한 기제로 작동하게 되었다. 즉 성리학의 빛으로(in the light of Neo-Confucianism) 정치적 상대의 정치적 언행을 스크린하고 비판하는 장치가 되었던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사논쟁의 전개과정과 그것의 구조적 안착과정과 한계를 조선 초기에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정학(正學)으로서의 성리학과 사대부의 등장

성리학과 정치의 일원론적 융합(monistic fusion)은 통치이념으로서의

2) 앞의 책, 5쪽.

성리학의 부상과 사대부의 고위권력층으로의 상승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위 상승은 독서인이라 할 수 있는 사대부를 독점적이고 자율적인 사회지배계층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막스 베버(Max Weber)는 종교의 운명은 주지주의(intellectualism)와 이것의 성직자나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3] 성리학과 그의 주창자들인 사대부들 또한 성리학이 조선왕조의 국가 이데올로기가 됨에 따라 상당한 운명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할 수 있다.

삼국시대에 소개되었을 정도로 오래전에 한반도에 유입된 유교는 고려말이 되어서야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통합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원칙으로 수용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무인정권에 의한 귀족정치가 붕괴된 이후에 새로운 관료층이 된 사대부의 등장으로 가능하였으며, 또한 안팎으로 강한 위협을 받고 있던 공민왕 시절에는 공민왕이 대외적으로는 반원정책(反元政策)과 대내적으로는 권문세가(權門勢家)의 억압을 위한 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사대부들을 등용함으로써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유교 경전은 사회 고위층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읽혀지는 정도였다. 이는 개인의 도덕적 풍조를 함양하고 자신들의 귀족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비록 중국과 그 변방의 여러 나라에서 "문자 교육이 사회적 명성의 척도였고 공직을 위한 기본적 자격"[4]이었지만 한국사회에서 고대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이 정부관리 선발을 위한 도구로 제도화된 것은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통일신라의 신문왕은 682년에 국학(國學)을 설립하여 육두품 출신을 입학시켜 유교경전을 읽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덕 지상주의를 앞세운 이들 사대부들을

3) Max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63), 118쪽.
4) Reinhard Bendix,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116쪽.

과거시험을 통해 등용함으로써 골품(骨品)과 불교를 바탕으로 하는 귀족세력을 약화시켜 전제왕권의 확립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훗날 귀족들이 권력을 회복하게 되자, 이들의 강한 견제와 방해로 인하여 사대부들이 목표한 중앙정부 요직에로의 진출은 좌절되었다. 고려의 광종 또한 958년에 과거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역시 개국공신 계열의 중앙귀족 세력을 억압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체제 설정의 기초 작업으로 추진되어졌었다. 그러나 광종이 죽자 문벌 배경도 없이 등용되었던 학자들은 즉시 제거되었고 고려는 다시 불교의 지지를 받는 귀족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

조선왕조의 개국과 함께 유교 경전은 사적인 차원의 교양서적에서 국가이념 또는 사회정치적 이데올로기의 공적 의미체계로 전환된다. 동시에 사대부들도 중앙의 낮은 관직 또는 지방 향리의 신분에서 중앙의 고위 관료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중국의 사대부와 조선의 사대부는 사회적 정체성에서 유사성을 보이지만, 조선에서의 사대부의 사회적 구성이 중국에서보다 더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었다는 것이다. 베버는 중국의 사대부를 아무런 세습적 성격이 없는 교육받은 평민 신분 집단(a status group of educated laymen)[5]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조선사회에서 사대부의 사회적 지위는 양반이라는 세습적이고 지배적인 특권계층에 의해 독점되었다. 물론 중국사회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과거시험이 개방되었지만 물리적으로 특정 계층만이 경전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지녔다는 것은 사실이다.[6] 그러나 조선사회에서는 아예 양반의 자녀들만 책을 읽고 시험에 응시할 기회가 주어졌다.[7] 따라서 양반들만이 여러 가지 사회적 특권을 누

5) Reinhard Bendix, 앞의 책, 117쪽.
6) Max Weber, *The Religion of China*, (New York: Free Press, 1951). 108쪽.
7) Ki-baik Lee, *A New History of Korea*, trans. by Edward W. Wagner with Edward J. Shultz,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4). 118쪽.

릴 수 있었기에 사회적 엘리트로의 진출 기회마저 세습화되었던 것이다.[8]

사대부의 사회적 신분상승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이들의 사회적 위치와 배경이다. 일반적으로 사대부(士大夫)는 중소지주 출신의 공적 지식인(official literati)을 지칭한다. 그러나 성리학에 대한 지식으로 무장한 사대부들의 출현은 중국의 남송(1127-1279) 시대에 보여준 독특한 사회계층의 사회 심리적 현상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자신들에게 정체성과 연대감을 제공한 유교 교육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독립적이고 차별적인 문화를 계발하였던 이 계층은 자작농으로서 주경야독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가졌었다. 또한 이들은 불로장생(不老長生, longevity)의 도교를 숭상하면서 부재지주(不在地主)였던 귀족과 스스로를 차별화 하였고 주술적인 불교를 미신적으로 추종하는 일반 대중과도 철저히 구별하였다.[9] 조선사회의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의 독특한 사회적 정체성을 지녔다. 이들은 향리에 소규모의 농장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민으로 인품의 청렴결백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권력을 등에 업고 불법수단으로 막대한 농장을 소유한 권문세가들을 경멸하였다. 아마도 베버가 말하는 "주술적 지향의 대중 종교의 한 가운데서 자신들만의 내밀한(esoteric)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체계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식인들의 내적 욕구"[10]가 발동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사대부들로 하여금 중앙 정치 무대로 진출하도록 자극한 것은 그들이 내세운 성리학적인 정치 이상과 윤리가 군왕과 군신은 물론 상하 군신 간의 상호적 관계에 따른 치국(治國)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는 신념이었다. 이러한 그들의 독특하고 자부심 넘치는 정체성과 정치적 이상은 고려의 경우처럼 세습적 귀족 특권을 통해서보다는 자정

8) 앞의 책, 174쪽.

9) 정태식, "성리학에 대한 베버적 일고찰 — 새로운 의미 체계로서의 성리학의 역사적 형성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 제62집, 한국사회사학회, 2002, 23쪽.

10)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124-125쪽.

(自淨) 시스템인 과거시험을 통한 정계에의 진출 방식을 고집하게 하였다.

3. 성리학적 정사논쟁의 전개과정

종교가 지니는 의미체계, 혹은 교리는 종교의 실천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역사성을 띠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의미체계 형성과정에 종교 실천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일반 신자들은 그들의 대중적인 종교체험과 주술적인 욕구가 반영되도록 영향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의미체제의 결정과정에서는 대체로 배제되어진다. 따라서 교리의 형성과 발전은 주로 종교엘리트들(religious virtuosos)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성직자들에 의해서만 독점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세속적 지식인들이나 수도원의 명상가들에 의해서도 의미체계는 발전되어질 수 있다.[11] 그러나 초기에 한 카리스마적 인물을 둘러싸고 형성된 종교집단은 카리스마 사후에 전개되는 일상화(routinization)와 합리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카리스마의 언행을 기록한 경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등장하게 되면서 내부적 갈등을 겪게 되기가 쉽다. 또한 카리스마를 정점으로 형성되었던 군중집단이 새로운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화되면서 후계자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 국면에 휩싸이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해석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조직적인 차원에서도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가릴 필요가 있게 된다. 결국 의미체계에 대한 도그마적인 동의(dogmatic consensus)를 필요로 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체계의 조직화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자들이 조직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을 장악한 자들이 제시한 의미해석이 정설로 설정되어질 수도 있게 된다. 이때 여러 이설들 중에서 표준으로 설정된 교리가 바로 교리의 정설

11)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111~119쪽.

(orthodoxy of doctrine)로 설정되어진다. 이렇게 채택된 정교(正敎)는 경쟁적인 다른 성직자들이나 합리성에 길들여진 일반 신도들로부터의 경전 해석에 대한 도전과 접근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예컨대 로마 교회는 절대 오류를 범할 수 없는(infallible) 절대적 권위를 제도적으로 교황에게 부여하였다. 이는 교리와 관련된 결정이 이루질 때 마다 직책에 있는 자의 종교적 영감에 대한 제도적이고 공적인 인정을 전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12]

그러나 중국의 경우 유교는 성직자들에 의해 독점되어지기 보다는 일정한 수준의 사회계층에 속하는 독서인, 즉 사대부들에 의해 읽혀지고 해석되며 발전해 왔다. 따라서 경전해석에 있어서 각기 다른 방법을 택하는 다양한 학파가 존재하였고, 그 결과 다양한 학설이 출현하였으며 이들 사이의 해석상의 갈등 또한 적지 않았다. 특히 유교 경전의 독서를 바탕으로 과거시험을 치루고 정부의 관료를 등용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다양한 해석을 내세우는 학파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있었고 그때마다 소위 말하는 정사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학과 사학을 구별하고 판단하는 권한이 대개는 국가권력에 주어진다는 사실이다.[13] 예컨대 한유에서 시작하여 주돈이, 장재, 정호, 정이 등을 거쳐 주희에 의해 남송 시대에 완성된 성리학은 훗날 원나라에 의해 과거시험의 교재로 채택됨으로써 정학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으며 또한 그의 사후 약 30년이 지난 후에나 주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었고, 성리학은 정치와 종교, 그리고 사회의 통합적인 시스템이 될 수 있었다. 문화적 또는 학문적 차원에서 이제 성리학은 유교 전통의 정통성을 획득하게 되었고, 사회정치적 또는 실질적 차원에서는 성리학자들의 중앙정부 진출이 가능해졌다. 결국 학문에 있어서의 정통성은 학자들과 학파에 의해 채택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군주가 새로운 의미체계를 지닌

12) 앞의 책, 74쪽.
13) 앞의 책, 121쪽.

학자들을 과거시험을 통해 등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14]

그러나 정학의 설정으로 정치 이념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것은 아니다. 일단 성리학이 국가의 지배적인 정치사회적 이념으로 채택되었지만 성리학의 정치적 실천과 적응의 과정에서 정사논쟁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히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군왕이나 신하들, 그리고 중앙 진출과 정치적 영향력 행사를 꾀하는 지방 유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갈등은 성리학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정치적 언행을 공격하는 정사논쟁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베버에 따르면 정사논쟁의 결과로 인한 특정인 또는 특정 학파의 파문(excommunication)은 교리적 일탈의 이유로 한 처벌로 행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정치적인 이유에서 벌어진다고 한다.[15] 이러한 정치적 이유를 함축한 정사논쟁을 역성혁명을 통해 개국한 조선왕조 역시 그 건국 초기부터 피할 수가 없었다.

1) 척불(斥佛)을 통한 정사 논쟁

고려 말의 어지러운 정치적 상황은 재향지주인 사대부들을 중앙으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공민왕의 개혁이 실패하고 그가 중용한 신돈 또한 권문세족들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었다. 이후 혈통의 의심까지 받았던 우왕이 즉위하여 공민왕의 정책을 일변하는 친원정책을 다시 펼치자, 왜구의 격퇴 등으로 새롭게 등장한 이성계 등의 무장(武將)세력과 정몽주 등의 신흥사대부세력으로부터 저항을 받게 된다. 결국 명의 요동원정 중 최영의 축출을 통해 이성계는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였고, 정도전, 조준 등의 신진사대부와

14) Wm. Theodore de Bary, *Neo-Confucian Orthodoxy and the Learning of the Mind-and-Hear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1), 2쪽.

15)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74쪽.

함께 사전(私田)개혁을 단행하였으며 권문세족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불교를 배척하기 시작했다. 경기 이외의 전국의 토지를 모두 공전(公田)으로 편입함으로써 권문세족의 경제적 토대를 일시에 무너지게 하였다. 결국 이성계는 공양왕의 양위를 강요하고 새 왕조를 세웠다. 구왕조의 몰락은 불교의 몰락을 수반하였고 신왕조의 건립은 유교, 특히 성리학의 승리였다.

그러나 왕조를 세우는데 있어 성리학 내부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정몽주를 비롯한 많은 성리학자들이 고려 왕조를 보존하려 노력하였고 조선왕조가 세워진 이후에도 역성혁명에 반대하며 그들의 관직을 벗어버리고는 하였다. 이들이 내세운 군왕에 대한 신하의 충성 원칙은 사실 신왕조의 정치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타격이 아닐 수 없었다. 또한 많은 성리학자들이 고려왕조의 붕괴를 슬퍼하여 관직을 버리고 스스로를 집안에 가두어놓고 문밖출입을 삼가거나 산속에 들어가 은둔생활을 하기도 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출발이 매우 불안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때 이성계와 그의 추종자들은 성리학적 정사논쟁을 정치적으로 전개한다. 왕국을 세운 그들은 한편으로는 궁정쿠데타를 정당화 하고 조선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리학자들의 아우성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이미 고려 말에 사전개혁 등을 통해 정치력은 물론 경제력까지도 상실해 무력해진 불교를 정사논쟁에 끌어들인다. 그것은 아직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지배적인 의미체계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던 잠재적인 이념적 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고려왕조에 있어서도 불교는 왕족의 사적 종교로서 경제적 특권을 누렸지만 그 자체의 교리적인 이유 때문에(예컨대 다른 세계의 지향) 조직적으로 사회정치적 영역에까지 세력을 확대하지는 못했었다. 단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였다면 불교는 "지배자의 정당성 지지의 종교적 재가를 제공하거나 백성의 순화(domestication)" 기능만을 했

을 뿐이었다.[16] 또한 조선에 성리학을 도입한 안향(安珦)이나 이제현(李齊賢), 이색(李穡) 등은 치국의 도로서 유교와 초자연적 세계를 지향하는 종교로서의 불교를 준별하였지만 불교의 존재이유를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17] 그러나 조선의 개국공신들은 이미 사유화된 불교를 탈신비화하고 성리학의 세속적 의미체계로 대체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선조 처음으로 불교를 상대로 성리학의 정사논쟁이 촉발되었던 것이다. 주로 정도전에 의해 그의 『불씨잡변(佛氏雜辯)』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쟁은 우선 고려왕조의 타락과 무능이 불교에 대한 왕조의 지원 때문이었음을 내세워 궁중 쿠데타의 당위를 역설하였다. 물론 고려 말에도 성리학자들은 사찰의 남용과 불승의 악행을 지적하면서 불교를 비난하기도 했지만 불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도전은 불교를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며 국가의 파멸을 초래할 정도의 파괴적인 종교로 철저히 거부하였다. 그에 따르면 불교는 하나의 심각한 장애물이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가치가 사회적 양심과 도덕적 합의, 그리고 개혁 실현을 위한 백성 동원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헌신 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었다.[18] 황선명에 따르면 조선왕조의 성리학으로의 지배종교 교체와 정도전 등에 의해 행해진 불교 억압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19] 결국 사찰 소유 재산의 몰수를 통한 국가재원 확충의 실제적인 실효와 불교비판을 통한 정치적 명분의 획득을 위한 정사논쟁의 일환이었음을 척불정책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16)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 2*,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8), 1162쪽.

17)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서울: 일지사, 1985), 72쪽.

18) Wm. Theodore de Bary, "Introduction,"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Edited by Wm. Theodore de Bary and JaHyun Kim Haboush,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5), 39쪽.

19)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73쪽.

2) 공신책봉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정사논쟁

신왕조의 건국자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의 정책을 펼쳤고 군왕의 백성에 대한 덕치를 강조하였다. 그러나 그들 또한 자신들의 정치사회적 지위의 확보에 주저하지 않았다. 과전법(科田法)을 통한 사전개혁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신분을 확보하는 첫 단계였다. 실제로 이법을 시행하면서 경기도에 한하여 관료들에게 그 관직의 고하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이성계, 정도전, 조준 등은 다대한 과전을 받음으로써 토지 할당의 독점권을 쥐게 되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성계의 등극 후에 그를 옹립한 신하들은 개국공신(開國功臣)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공신전(田)을 받게 되었다. 이들 중 일등공신전을 가진 자의 수입은 사실 최고의 관직 보유자가 받는 봉록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더욱이 이들 공신전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상속될 수 있게 하였다. 조선왕조는 중앙집권적 관료 제도를 그 행정의 골간으로 채택하였지만 베버가 말하는 근대 국가의 기본적인 개념인 "행정 관료와 행정 조직의 수입 수단과의 분리"[20]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모순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 초기는 정치적 안정을 꾀할 수가 없었으며 특히 힘의 정치적 균형에 있어서 안정적이지 못하였다. 우선 공신제도의 존재와 공신전의 수여가 공신들의 군왕과의 권력 분유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신들은 정책 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예컨대 태조는 합의 기관인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결의를 재가하여 시행하게 할 따름일 정도로 정치의 실권을 개국공신들에게 넘겨주었다. 이

20)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ited and trans.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8), 82쪽.

들에 의한 조선초기의 정치는 고려 귀족정치의 재현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왕과 신하의 권력 분유는 사대부 출신의 관료의 보필아래 스스로를 늘 교육하는 군왕의 지위를 유지한다는 명분에서였다. 더욱이 정도전은 신하의 권력을 강화하고 권신들이 정책 실행 권한을 더 가지도록 하였다. 물론 이것은 "권력의 전반적인 탈 중심화는 아니었고, 중앙 국가체제의 해체도 아니었으며 단지 왕조의 자의적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조정"이라 할 수 있다.[21] 또한 정도전은 군왕의 권력 집중화도 막고자 하였지만 동시에 어떠한 정치적 집단에 의한 권력의 독점도 배제하려 하였다. 토지와 세재의 개편을 통한 복지국가의 주창자로서의 정도전과 그의 동료 개혁가들은 국가의 본질적인 권위를 손상함 없이 군왕의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에서였다. 결국 정도전 등의 개혁세력이 도모한 통치구조는 외형적으로는 군왕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절대군주체제이지만 군왕과 양반 관료사이에의 권력분유와 조화를 통해 왕권과 신권, 그리고 관료들 사이에서도 상호 견제가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현실정치에서 개혁세력들은 그들이 제시한 명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순적이지만 개국공신이라는 업적을 내세워 군왕과 권력분유를 놓고 갈등을 벌였던 것이다.

결국 공신을 중심으로 한 도평의사사의 권한이 왕권을 약화시킬 정도로 강화되자 이를 제어하기위한 노력으로 정종 2년에는 관제개혁을 실시하여 도평의사사대신 의정부를 설치하였고, 태종에 이르러서는 의정부의 기능을 6조(六曹)로 분산함으로써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개혁에 앞서, 위에서 말한 공신들과 왕권의 갈등은 여전하였기 때문에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다른 정사논쟁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태조 이성계는 사적인 차원에서 불교를 실천함으로써 권신들과의 불

21) Wm. Theodore de Bary, "Introduction,"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39쪽.

안정한 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는 하였다. 그는 신왕조의 개국을 공표하면서 불교의 혁파를 선언하였지만 궁궐에서 불교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였고, 병든 왕비를 위해 승려로 하여금 궁궐에 머물도록 허용하기도 하였다. 이는 조선왕조의 성리학적 이념에는 물론 신왕조의 건국자들인 사대부들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에 다름 아니었다. 이러한 유형의 갈등, 즉 국가의 공적 이념으로서의 성리학과 사적 실천 종교로서의 불교와의 갈등은 조선조 초기에 거듭해서 발생하였다. 예컨대 세종은 궁궐 안에 내불당(內佛堂)을 세워 유생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기도 했고, 세조 또한 원각사를 세우기도 했다.[22]

이러한 왕권과 신권사이의 갈등은 왕권계승 분쟁과도 뒤섞여 왕조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한편 왕권과 신권의 우위를 놓고 이념적으로 다투는 정사논쟁의 정치적 기제를 촉진시켰다. 이성계의 셋째 아들 이방원은 왕좌에 오르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과 골육상쟁을 벌였고 동시에 왕권 강화의 명분으로 누구보다도 먼저 정도전을 살해하였다. 또한 사병(私兵)의 철폐를 단행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였고 동시에 형 정종을 밀어내고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태종이 된 방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조의 정통성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으며, 동시에 쿠데타의 성공적 도모로 야기된 불안정한 정국을 안정시키기 위해 또 다른 공신을 양산해 냄으로써 왕조의 내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다. 공신책봉제도는 관료의 성리학에 기반을 둔 선발 원칙인 과거시험을 통한 등용원칙에 위배되는 변칙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공신은 반복해서 양산되는데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폐위하는 과정에서 사육신 등의 여러 학자들을 살해하는 한편 자신에 협력한 자들을, 심지어는 글을 읽지 못하는 자들까지도 공신으로 세워 요직에 등용함으로써 성리학과의 괴리와 모순을 거듭 드러냈다. 이로 인해 야기

22) Wm. Theodore de Bary, "Introduction,"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39쪽.

되는 문제는 성리학이 제시하는 통치철학과의 모순을 넘어 공신전의 증가로 인한 공전(公田)의 감소를 가져와 사전개혁의 명분을 손상시키는 한편 국가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국왕은 권신들이 제공하는 경제적 지원의 대가로 신하들과의 권력 분유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른 한편 국왕은 공신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 지방의 사림(士林)을 대거 중앙에 진출하게 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신들의 행태를 제어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또 다른 정사논쟁이 거듭 일어났고 이는 피비린내 나는 사화(士禍)로 이어졌다. 여기에서 사화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전개할 수는 없지만 정사논쟁의 한 형식으로서의 사화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지식인으로서의 성리학자들의 정치사회적 위치에 대한 구조적 논의를 사회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이미 언급했지만 베버에 따르면 종교의 운명은 상당부분 지식인들의 성직과 정치권력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한다. 그러나 유교에서는 불교나 기독교에서처럼 성직자를 갖지 않기에 우리는 유교의 발달에 있어서는 오직 지식인들과 정치권력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베버가 성직자 출신 지식인과 평신도 출신 지식인을 구별하였듯이 우리는 유교적인 중국과 조선에서 공적인 직함을 지닌 사대부 정치인과 일반 사대부, 특히 지방의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림(물론 이들 중에는 공직을 기대하며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유생을 포함하지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 마디로 유교의 지적인 발전은 같은 사대부로서의 관료들과 지방사림의 변증법적 관계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적 성향은 물론 성리학 이념과 원칙의 정치적 적용에 있어서 각기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가 보다 현실적이라면 후자는 보다 이상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유대교에서는 제사장과 예언자 사이에서, 중세 가톨릭에서는 성직자와 수도승 사이에서, 오늘날의 가톨릭에서는 교구와 수도회 사이에서, 그리고 성직자와 신학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논쟁이 이론과 실제사이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성리학의 이상을 바탕으로 하면서 강한 도덕적 추진력을 지닌 사림들은 기존의 정치관료 사대부들의 행태를 성리학의 빛으로 비난하였다. 성종의 도움으로 중앙에 진출한 이들 사림 세력들은 주로 사간원이나 사헌부의 3사에 포진하였으며 곧 공신들의 탈규범적 행태에 대하여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사논쟁의 결과는 늘 국가의 정치적 질서와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기 위해 한 쪽이 다른 쪽을 압도해야 했으므로 대개는 세가 약한 사림의 숙청으로 결론지어졌다. 국왕은 훈구와 사림간의 정사 논쟁에서 강한 정치력을 지닌 훈구파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서 사림은 약 50년 동안 네 번의 커다란 사화(士禍)를 겪게 되었다. 훗날 이러한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은 붕당정치로 발전하면서 더욱 심화되었는데 몇몇 서원을 중심으로 한 학파들이 베버가 말하는 '지식인 길드(literati guild)'[23]로 조직되어 당파싸움의 주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화로 결론지어진 훈구세력과 사림과의 갈등은 또 다른 양상의 정사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통치구조의 조직화를 통한 정사논쟁의 제도화

결국 조선왕조의 건국과정에서 나타난 왕권과 신권사이의 갈등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모순을 드러내게 하였으며 권력분유의 정도를 놓고 이념적 갈등을 거듭하게 하였다. 또한 신하들 사이에서도 훈구와 사림 사이의 정치적 갈등을 통한 정사논쟁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정사논쟁의 결과가 가져오는 무자비한 숙청과 처절한 살육의 반

23)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118쪽.

복을 피하기 위해 정사논쟁의 제도적 장치화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완성된 것은 건국초기부터 시작하여 성종 대에 만들어진 경국대전(經國大典)을 통해서였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과정에서도 신권과 왕권의 우위 다툼이 없지는 않았다. 예컨대 도평의사사가 폐지된 후 새롭게 세워진 의정부의 권한을 태종은 약화시켰지만 세종은 문치를 중시하여 이를 다시 강화하였다가 역시 쿠데타를 통해 왕위를 찬탈한 세조는 다시 이를 약화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통치구조는 점차 군왕과 권신 사이에 권력이 나누어지는 방식으로 정착되었고 또 관료기구들 사이에서도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짜여 졌으며 그 비판의 규준은 성리학 자체였다. 그러나 성리학이 지니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은 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논하는 방식의 정사논쟁을 필요로 하였다. 정사논쟁이 제도화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구조적인 장치와 상호견제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의 통치기구로는 국왕, 의정부, 6조, 그리고 3사가 있다. 중요한 국사는 국왕과 의정부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며 이의 집행기관은 6조였다. 이들 기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논의 과정과 정책의 집행방식 결정 과정에 있어서 성리학은 하나의 잣대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논의를 보다 실질적으로 스크린 하는 한편, 국왕과 의정부나 6조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 감시를 하는 기관으로는 국왕의 자문기관인 홍문관과 대간으로 이루어진 사헌부와 사간원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역사기록을 담당하는 예문관과 춘추관, 그리고 오늘날 비서실 격인 승정원, 유생들의 교육기관인 성균관 등이 늘 성리학의 빛으로 국왕과 대신들의 권력 독단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가 있었다. 여기서 국왕은 유교적 정치 이상의 올바른 실천을 행하고 있는가가 그의 백성 통치 방식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사되며, 대신들은 국정의 수행에 있어서 그들이 보여주는 군왕에 대한 충성의 정도

와 정치적 언행이 감시를 받게 된다.

특히 군왕의 통치를 성리학의 이념으로 가장 잘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 중의 하나는 세자 시절에 참여하는 서연(書筵)과 왕으로서 참여하는 경연(經筵)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군왕에게 경서를 강독하고 연구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군왕의 덕과 성리학이 제시하는 지배자의 덕과의 일치를 도모하기 위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신이 함께 경연에 참여함으로써 왕의 도덕적 체화를 통한 권력 견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자리라고도 할 수 있다.

5.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는 정사논쟁이 조선왕조의 건국을 전후로 하여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는가를 살펴보는 한편 정사논쟁의 제도화 과정을 논하였다. 성리학을 둘러싼 정사논쟁이 왕조 초기에는 역성혁명을 정당화하였고 고려붕괴의 당위성을 피력하였으며, 쿠데타와 성리학과의 내적 불일치로 인한 일부 성리학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불교를 상대로 전개되었지만, 계속되는 왕권찬탈을 위한 궁정 쿠데타는 정권의 정당성과 성리학 이념과의 불일치를 촉진시켰고, 불안정한 왕권은 성리학의 인재등용 원칙과 더욱 상반되는 공신책봉 등의 비정상적인 정치수단을 활용함으로써 마침내 중앙의 훈구파와 지방 사림파의 갈등을 촉발하여 사화라는 정치적 숙청 사건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조화와 견제를 위해 정사논쟁을 제도권 안에서 활발히 전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력구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장착한 제도가 마련되었을 지라도 위의 사화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정쟁은 계속되어 당쟁, 세도정치 등의 비정상적인 정치행태를 조선왕조는 보여 왔다. 물론 이러한 정

사논쟁의 기제를 통한 상호 견제와 세력 균형의 유지를 통해 왕조를 5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력을 국내의 정치적 갈등에 쏟아 부음으로써 임진왜란 등의 국제적 격랑에 휘말리게 되자 힘을 쓰지 못하는 허약함을 조선왕조는 드러내고 말았다. 이것은 성리학의 이념체계가 사실상 상당히 관념적인 차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며, 그것이 제시하는 이상 또한 우주와 사회질서를 지배하는 원칙으로서의 도(道)의 개인적 차원과 국가와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치적 완성을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 도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24] 결국 도에 대하여 그리고 도의 국가적 완성을 위한 정치윤리의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공존하였고,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그가 왕이든 신하든 아니면 학자든 간에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주장되고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였기 때문에 정사논쟁은 성리학의 국가유교화의 필연적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리학은 조선왕조의 역성혁명적인 창업에 정당성을 제공하고 백성에 대한 통치이념을 제시하는 등 그것의 정치적 적용의 결과로 얻어진 긍정적 결실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왕과 신하들에 족쇄를 채우는 철장(iron cage)이 되기도 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정사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고 필요로 하기도 하였다. 군왕은 신권의 남용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하들은 전횡의 가능성이 높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같은 신하들 사이에서도 권력의 치우침을 억제하기 위해서, 마침내는 학연과 지연을 바탕으로 하는 당파들이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사논쟁을 적극 활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오늘날의 모든 정치 이데올로기가 그러하듯이 성리학 또한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활용되기도 하고 남용되기도 하였던 것을 조선왕조는 보여주고 있다.

---

24) Weber, *The Religion of China*, C. K Yang의 "Introduction," xxxvii쪽.

【참고문헌】

김운태, 『조선왕조 정치 행정사』, 서울: 박영사, 1995.

이성무, 『조선왕조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1995.

이성무, 『조선 양반사회 연구』, 서울: 일조각, 1995.

이성무, 『조선왕조사』, 서울: 동방미디어사, 1998.

이은순, 『조선후기 당쟁사 연구』, 서울: 일조각, 1996.

정태식, "성리학에 대한 베버적 일고찰 – 새로운 의미 체계로서의 성리학의 역사적 형성에 대하여", 『사회와 역사』, 제62집, 한국사회사학회, 2002.

한우근, 『한국통사』, 서울: 을유문화사, 1981.

황선명, 『조선조종교사회사연구』, 서울: 일지사, 1985.

Reinhard Bendix, *Max Weber: An Intellectual Portrait*,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7.

Wm. Theodore de Bary, *Neo-Confucian Orthodoxy and the Learning of the Mind-and-Heart*,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1.

Wm. Theodore de Bary and JaHyun Kim Haboush Edited. *The Rise of Neo-Confucianism i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5.

Martina Deuchler,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 Press, 1992.

JaHyun Kim Haboush, *A Heritage of Kings: One Man's Monarchy in the Confucian World*,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88.

Ki-baik Lee, *A New History of Korea*, trans. by Edward W. Wagner with Edward J. Shultz,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84.

James T. C. Liu, "How did a Neo-Confucian school become the state orthodoxy?", *Philosophy East and West*, 1973.

James B. Palais, "Political Leadership in the Yi Dynasty," *Political Leadership in Korea*, Edited by Chae-Jin Lee, etc., Seattle: Univ.

of Washington Press, 1976.

Ahmad Sadri, *Max Weber's Sociology of Intellectual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92.

Wei-ming Tu, *Way, Learning, and Politics: Essays on the Confucian Intellectual*, Albany: State Univ. of New York Press, 1993.

Wei-ming Tu, *Confucian Traditions in East Asian Modernity: Moral Education and Economic Culture in Japan and the Four Mini-Dragons*,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96.

Max Weber, *The Religion of China*, New York: Free Press, 1951.

Max Weber, "Politics as A Vocation," *From Max Weber: Essays in Sociology*, Edited and trans. by H. H. Gerth and C. Wright Mills, New York: Oxford Univ. Press, 1958.

Max Weber, *The Sociology of Religion*, Boston: Beacon Press, 1963.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V. 2*, 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78.

Edward Willet Wagner, *The Literati Purges: Political Conflict in Early Yi Korea*,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74.

논문투고일 : 2005. 6. 30 심사시작일 : 2005. 7. 15 심사완료일 : 2005. 7. 28

Abstract

A Historico-sociological Study on the Polit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o-Confucian Controversy of Orthodoxy-Heterodoxy in the Early Choson Dynasty

Jung, Tai-Sik

This study aims to clarify socio-historically how the Neo-Confucian orthodoxy-heterodoxy controversy had developed and institutionalized right before and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Choson dynasty. The controversy started against Buddhism in order to justify the overthrow of Koryo Dynasty, to save the dynasty from the ideological crisis between the revolution and Confucian emphasis on loyalty to the throne, and to soothe the agitation of Confucian scholars. However, from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as a new dynasty, the Choson dynasty had revealed its unstability sometimes by carrying out royal coup d'état to sit on the throne, by its utilization of mal-functional way of governing such as merit subject system, and by royal families' practice of Buddhism. These had resulted in the ideological contradiction with Neo-Confucian political ideals and principles. All of these factors had brought some weakness into the power of the throne, his legitimacy, and his power balance with high echelons. Again and again, the controversies of orthodoxy-heterodoxy were introduced to save the court and maintain the equilibrium of royal politics.

Thus, the fusion of politics with religion, namely Neo-Confucianism, had resulted in political crises and ideological conflicts. Also the controversies were promoted to win over the political power of opposite politicians among the king, high political echelons, and low rank officials including censors and inspectors, and soon institutionalized in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dynasty. However, due to the implied ambiguity of Confucian way of politics and morality, each politician following his or her own ideal or material interest manipulated the controversy for the sake of the overthrow of his/her political opposites. Sometimes the king agitated the controversy in order to prevent the overuse of the power of high echelons, and the echelons to stop the royal

despotism of the absolute monarch and to obstruct the excessive inclination of power into a few political parties. Thus the controversy had went on and on through the whole period of Choson dynasty, first between the king and his high echelons, and later between merit subjects and *sarim*, the rural Neo-Confucian scholars, and much later between different political parties with different academic and regional backgrounds.

In a word, as various kinds of today's political ideologies have been, Neo-Confucianism that had been transformed from Confucian political ethics into a political ideology of Choson dynasty had been utilized or manipulated for the sake of specific person's or power group's political interest.

Key Word

Neo-Confucianism, Controversy of Orthodoxy-Heterodoxy, Monistic Fusion of Religion and Politics, Literati, *Sarim*(Rural Confucian Scholars), Merit Subject System